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19년 2월 제228호 http://cnmhs.net7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임세환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82-5658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이 · 취임식 3월 22일(금) 개최"

둔산 오페라웨딩에서…제81차 총동문회 이사회 예·결산 등 현안 의결

박대용 차기 총동문회장 후보가 이사들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임세환 총동문회장이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의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충기총동문회 제81차 총동문회 이사회가 대전 탄방동소재 킹덤뷔페 3층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2018년도 결산보고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오는 3월 22일 저녁 7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한 회칙 12조(임원의 임기) 내용에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임세환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동문회가 안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 동문들의 적극 협조와 집행부 임원들의 절약정신으로 9천여 만원의 돈을 일반회계로 차기 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었다"며 "특히 16회에서 차기 회장을 맡아주기로 한 용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길 16회동문회장은 차기 회장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에서 "16회는 언젠가 총동문회장을 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회장을 맡아야해서 저희 16회동문들과 상의 끝에 인품이 훌륭한 박대용 친구를 지난 2월 9일 고문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모임에서 추천했고 그날 16회친구들이 전북 장수까지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니 박대용 친구가 흔쾌히 수락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3월 8일 16회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총동문회장 후보로 추대할 계획이며, 그동안 임세환 회장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박대용 후보가 회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16회 친구들이 적극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대용 차기총동문회장 후보는 "모교와 총동문회에 항상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협조하지 못해 유감스러웠고, 총동문회가 최고의 가치를 빛내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16회가 단합된 모습을 발휘하여 총동문회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선후배 동문들이 협조해주시고 채찍질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1회), 서한수 3회 졸업5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 김연승 법우회(충기출신 법조인 모임) 회장(11회)의 건배사가 있었다.

동문 이사들은 이사회를 마치고 뷔페음식으로 만찬을 들며 선후배와 동기들 간에 우의를 나누고 3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멋진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기다려진다.

충기 만세!

– 신도성 편집위원 –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공고

올해는 모교 개교 56주년을 맞는 기해년입니다. 3만 3천여 동문의 발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해에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일시: 2019년 3월 22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둔산동 오페라웨딩 4층 아델리아홀
* 내용: 정기총회 및 이 · 취임식
* 대상: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모든 동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임 세 환

“동문회는 무조건 뭉쳐야 힘나와,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기 사랑하세 ”

총동문회 기해년 회장단 모임 20여 명 참석 단합된 모습 보여

총동문회 기해년 회장단 모임이 2월 15일 대전 탄방동 청해어가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이날 모임은 임세환 회장이 다음주 22일 저녁 제81차 총동문이사회와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후임 회장 선임에 대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최했다. 오응수(1회), 이우정(3회) 총동문회 고문과 이원승(8회), 전종현(12회) 전 총동문회장이 참석했고 9회, 10회, 12회, 13회, 16회, 21회, 22회, 23회, 24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임세환 총동문회장은 “충기동문회의 전통은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총동문회에서 덕망이 있는 검증된 사람으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 종전처럼 단합된 동문회를 만들어가자”고 인사했다.

오응수 고문은 “후임 회장을 잘 선출하여 더욱 발전하는 총동문회를 만들자”고 덕담했다.

이우정 고문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동문회는 무조건 뭉쳐야 힘이 나온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원승, 전종현 전 회장이 덕담과 건배를 제의했고, 바쁜 일정으로 늦게 참석한 김종천 22회동문회장(대전시의회 의장)이 인사했다.

또한 금년 11월 졸업3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는 24회 배석근 공동추진위원장이 “동기들과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석길 16회 동문회장이 총동문회장 추대문제에 대해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 2월 9일(토요일) 16회 동기 4명이 선배님을 모시고 논산 탑정호식당에서 점심을 들며 16회동문들은 몇년 전부터 총동문회장을 맡을 준비를 했으며 총동문회장 추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날 점심식사후 전북 장수로 박대용 친구를 찾아가 간청하니 흔쾌히 수락함에 16회동문회는 30명 정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후원할 계획이고 오는 3월 8일 16회 모임에서 정식으로 회장 추대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동문회장 후보인 16회 박대용 동문(법무사)은 “기대감 보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동기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후보는 “사람은 각자 다르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반목보다는 화합으로 재밌는 총동문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대용 동문은 건배사로 “충기” “만세”로 분위기를 띄웠고, 이장수 자문위원(8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기사랑하세”로 건배사를 하여 자랑스런 동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임세환 총동문회장이 기해년 회장단 모임을 개최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회장이 차기 총동문회장 선출에 대한 동문들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응수 총동문회고문이 후임 회장을 잘 선출하여 전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장수 총동문회자문위원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기사랑하세” 건배사를 했다.

전종현 전 총동문회장이 다시는 어려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석근 24회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이 올 11월 행사에 대해 홍보했다.

박대용 차기 총동문회장후보는 동기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다고 토로했다.

“총동문회가 최고의 가치를 빛내도록 최선 다할께요”

방명록 사인

국기에 대해 경례

먼저 가신 동문과 순국선열께 묵념

임세환 총동문회장 인사

예산결산 심의

한흥교 사무총장 예산안 설명

동문 소개 14회 인사

16회 동문들

윤석길 16회동문회장 회장후보추천 경과 보고

금강산도 식후경

즐거운 식사와 담소

1회와 3회 선배님

송주영 총동문회고문 건배 제의

선배님들 한잔 받으시죠

20회, 30회 후배들 명함돌리기

서한수 3회졸업 50주년추진위원장 건배

김연승 법우회장 인사

21회 진춘식 동문과 28회 이용원 동문 담소

24회 배석근, 김경한 동문

이사회 책자를 세밀히 살피는 9회 동문들

이사회를 마치고 인사나누는 임세환 회장

“선배들 전통 이어받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 있다”

4년째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쾌척, 기룡전기 이중선 대표 올해 1천만원 전달

이중선 기룡전기 사장이 모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업체로 시작한 기룡전기가 전국적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기룡전기 대표이사 이중선 동문(36회)은 2월 15일 오전 모교를 방문하여 황대연 교장에게 모교 후배 신입생에게 지급할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기룡전기 이우정 회장과 모교 김대식 교감, 이중선 기룡전기 대표의 모교 은사인 이재범 전 모교 교사(기룡전기 기술이사) 등이 배석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중선 동문은 “학창 시절 어렵게 모교에 다녔던 기억이 나,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돋우기 위해 마련했다”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선 동문은 모교에서 3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끈끈한 정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중선 동문의 은사인 이재범 모교 전기과 교사(2017년 8월 정년), 그리고 이재범 교사의 은사인 이종택 선생님(98년 정년)이 사제의 연을 이어오며 장학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선 대표는 고교시절 학교에 자주 결석하며 방황을 하다가 퇴학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이재범 교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졸업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제자 이중선은 기룡전기 대표이사로 성장했고, 고교시절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어준 은사 이재범 선생은 영원한 은인이자 인생 멘토가 되었다.

이재범 교사는 조선일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올해의 스승상’으로 뽑혔고, 이재범 교사의 후배이며 제자인 이중선 기룡전기 대표(36회)와의 사제 스토리가 조선일보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중선 대표는 “고교시절 담임이신 이재범 선생님의 정성으로 오늘날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후배들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중선 동문의 기룡전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국적인 회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성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중선 동문처럼 동문 후배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문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임정규 회장 “즐겁고 단합하는 모임 만들터”

12회동문회 2019년 정기총회

잘 나가는 동문회로 소문난 12회 동문회가 유성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다.

12회동문회는 지난 1월 25일 대전 유성라온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박찬웅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12회 친구들은 그동안 화목하게 잘 지내왔다”며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가자” 말했다. 이어 2년간 12회를 이끌 임정규회장과 서영환 수석부회장, 김상남 부회장, 고성하 사무국장, 황선옥 감사를 선출했다. 임정규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로 “12회동문회를 즐겁고 단합하는 모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12회동문회는 2018년 결산에 이어서 안건 토의에서 기존 연회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여 확정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5월 열리는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 논의

충기산악회 2월 월례등반대회 보문산 올라

동문들이 보문산 등반 중 고촉사 불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기산악회(회장 진춘식)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0일 일요일 대전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보문산을 등반하였다. 이날 등반은 문화동 청년광장에서 시작하여 고촉사를 지나 보문산의 정상인 시루봉까지 올랐다.

올 겨울 유난히 눈이 안 와 겨울산행에 눈이 없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기분도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좋은 느낌이었다. 기해년에 동문들의 건강지킴이로 등반만큼 좋은 게 없을 듯 쉽다.

이날 등반에서는 지난해 제8회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가 5월 26일(토요일) 계족산 일원에서 열린 것을 상기하고, 올해 제9회 등반대회의 장소와 날짜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갖고, 다음 달에 확정하여 홍보하기로 결의했다.

– 김정규 충기산악회총무(35회) –

“‘할 수 있다’와 ‘또 다른 시작이다’는 마음자세로 성실하게 살자”

황인범 선수 미국 가기 전 바쁜 일정에도 모교 들러 간담회

모교 출신 축구국가대표선수로 요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있다. 대전시티즌 소속 황인범 선수다. 황인범 선수는 2월 15일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12일 오후에 모교를 인사차 방문하고 모교 시청각실에서 후배들과 시민들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에다가 준수한 외모를 지닌 황인범 선수를 보기 위해 방학 중인데도 모교 후배는 물론, 모교 펜싱부, 정구부 후배 선수들과 대전시내 초중고생, 시민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날 간담회는 황 선수의 모교 은사인 김정길 교사(체육부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황 선수는 미국메이저리그사커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이 확정되어 15일 출국해야 하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교 후배들을 위해 시간을 냈다. 황인범 선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모교를 방문하여 총동문회사무실을 찾아와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 등 임원들과 차를 나누며 잠시 환담한 후, 교장실로 황대연 교장을 예방했다.

황인범 선수는 이어 모교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간담회에 참석했다. 황 선수는 간담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사로 감기기운이 있어 목이 잠겼음에도 진지한 자세로 한 시간 20분 동안 각종 질문에 대답했다.

황 선수는 특히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어른들 조기축구에서 공을 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하여 축구는 직업이 되었다. 친구들처럼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꿈을 지녀보지도 못한 채, 축구만 하다 보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축구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 홍보책자에 좌우명과 임하는 각오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다’는 좌우명 문구를 선정했다.

황인범 선수

간담회 후 모교 후배, 초중고생, 대전시민 등 참석자와 단체기념사진을 찍었다.

총동문회사무실 입구에서 동문들과 한 컷.

교장실에서 선생님들과 웃으면서 기념촬영.

당시 2부리그 소속 선수에다가 금메달 따면 군대 해결하는 게 아니냐는 등 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좌우명으로 선정했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인지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 경기 매 순간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할 때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할 수 있다’를 되새기면서 준비하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선수는 또한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 생각한 말이 하나 더 있어 좌우명으로 추가했다. ‘이제 또 시작이다’라는 말이다. 좋은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시간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산무궁화팀에서 제대하여 대전시티즌으로 복귀하여 바로 경기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했다. 항상 모든 일을 마치고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오지만 그것에 빠질 새 없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대비해야 한다. ‘할 수 있다’와 ‘이제 또 시작이다’를 주문처럼 외우다보니, 좋은 결과에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강조했다. 피곤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종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풀어간 황인범 선수는 “장시간 들어주시어 고맙다”며 “앞으로 좋은 선수 될 테니까 많은 응원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공고 재학시절에도 인성이 좋아, 힘든 운동 후에도 밤늦게 공부하여 자격증을 딴 사례는 지금도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인범 선수의 좌우명을 들은 후배들은 “매일 시작되는 하루 24시간, 매번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 ‘할 수 있다’와 ‘또 다른 시작이다’는 마음자세로 성실하게 임하자”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아무쪼록 황인범 선수가 미국에서 건강하게 활약하고 유럽무대까지 진출하도록 모든 동문들의 힘을 모아 응원한다.

– 신도성 편집위원 –

황인범 훈련 본 밴쿠버 감독 “좋은 자질 갖췄다”

모교 출신 스타 황인범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밴쿠버 화이트캡스 훈련을 처음으로 소화했다.

밴쿠버는 지난 2월 2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의 훈련 합류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인터뷰는 물론 훈련 영상까지 게재하면서 황인범에게 기대하는 바를 잘 보여줬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 차려진 훈련캠프에 합류한 황인범은 이번주부터 새로운 팀동료와 훈련을 시작했다. 아직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황인범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모두 나를 환영해줘 기분이 좋다”라고 첫 소감을 밝혔다.

황인범은 오랜 고심 끝에 밴쿠버행을 택했다. 오래 전부터 꿈꿨던 독일 무대 제안이 있었지만 아시안컵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UAE)까지 방문하고 부모님을 직접 설득한 밴쿠버 부사장의 적극성에 조금은 생소한 MLS행을 결정했다.

황인범은 “부모님이 부사장님의 프리젠테이션에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두바이로 건너왔고 나 역시 미팅에서 큰 기대를 느꼈다. 밴쿠버의 열정을 봤다”며 “이영표 선배가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밴쿠버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고 계약을 맺은 후에는 미래만 생각하고 왔다”라고 그동안 고민한 흔적을 숨기지 않았다.

황인범의 훈련을 지켜본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만족감과 조언을 두루 건넸다. 황인범에 따르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첫 만남에서 “축구를 즐기라”는 말로 압박감을 덜어줬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황인범에 대해 “4-3-3 포메이션의 미드필드 세 포지션 모두 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기술적으로 놀랍다.

MLS에서 스페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 스포탈코리아 기사 –

“훌륭하게 성장 제자들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 담당 뿌듯”

41년 교직생활 ‘유종의 미’ 황대연 모교 교장 이임사

1978년 3월 14일 연무대기계공고에서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첫 발을 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긴 세월도 돌아보면 촌음이라 했던가요?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지나갑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보니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교정의 ‘조국 근대화의 기수 탑’은 우리나라 역사의 생생한 흔적입니다. 어렵던 그 시절 우리나라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의 집중 목표는 자립경제구조의 실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끼니 걱정을 하던 힘든 시기였기에 1950-60년대에 처음 오징어, 가발 등을 수출하여 연간 수출액 1억불 달성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온 국민의 염원은 우리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자격 취득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가며 불철주야 지친 몸으로 실습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이겨낸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볼 때면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헤쳐 나온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에 자랑스럽습니다.

교직에 41년을 몸담고 생활해 오다 보니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시대를 뒤로 하고 교단을 떠나게 되어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훌륭하게 성장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에 그저 뿌듯할 뿐입니다.

지난 세월 교사로서 관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어려울 때 응원해 주시던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직에 근무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주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주었다면 제가 부덕하여 생긴 일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단을 떠나야하는 순간입니다. 교직생활에서의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동료 분들 덕에 즐거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는 재복(財福)은 없어도 인복(人福)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평소에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기 교육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시길 두 손 모아 빌며 퇴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장 황 대 연

“모교 후배들에게 사랑과 열정 토해 헌신”

황대연 교장 퇴임식, 임세환 총동문회장 기념품 전달

임세환 총동문회장이 정년퇴임식에서 황대연 교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명예롭게 정년 퇴직하는 황대연 교장의 정년퇴임식이 2월 22일 오후 6시 유성 더제이뷔페에서 거행됐다.

황대연 교장은 1978년 3월 교사 초임 발령을 시작으로 총 41년의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그 중 모교에서는 교사 및 교장으로 6년 6개월을 근무했다.

모교에서 근무한 평교사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교 후배들에게 애정 어린 지도와 2016년 9월 모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NCS사업 등 모교 발전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다해 주었으며, 총동문회에서는 그 높은 뜻을 기리고자 임세환 총동문회장이 퇴임식에 참석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모교 황의만 교장 부임 “모교 발전 기대”

이상규, 김정길 교사 등 10명은 타학교로 이동

모교 교장으로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황의만 교장이 새로 부임한다. <사진> 황의만 교장은 과거 모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총동문회에서도 모교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

또한 2019년 3월 1일부 인사 명령에 의해 10명의 교사(이상규, 강건우, 김신은, 전향운, 박정윤, 변재훈, 서지원, 신은숙, 김윤이, 김정길 교사)가 타 학교로 자리 이동하게 됐다.

총동문회 7명, 청암 20명, 기룡전기 10명 장학금 수여

2019년 모교 입학식 8개과 303명 입학

모교 2019년 입학식이 3월 4일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입학식에는 8개 과 303명의 신입생이 입학한다.

한편 올해 입학식에는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총동문회는 7명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청암그룹(회장 이언구. 16회)은 신입생 10명과 2학년 재학생 10명 등 모두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기룡전기(대표이사 이중선. 36회)는 신입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유병춘 편집위원(11회. 모교 교사)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국 편집실 ☎(042)282-5658

수입 현황

기간 : 2010년 1월 23일 ~ 2019년 2월 26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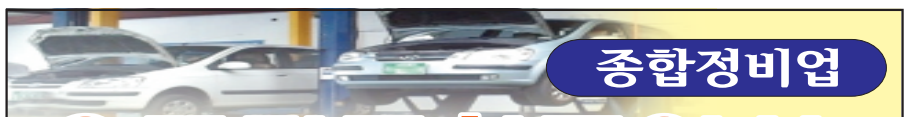
방	1	강필규	20,000	방	7	김봉규	100,000	자	10	홍성주	20,000	전	16	김병호	50,000	기	23	홍열표	20,000
자	1	류 선	20,000	전	7	김상구	20,000	전	11	남상천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기	24	가재훈	20,000
자	1	민승기	20,000	광	7	배충광	20,000	방	11	박영석	20,000	전	16	김희곤	50,000	전	24	강노산	50,000
방	1	박성재	20,000	자	7	신상호	20,000	자	11	양준전	20,000	기	16	박대용	120,000	기	24	박종호	20,000
자	1	배성열	20,000	자	7	안문용	20,000	전	11	오연진	20,000	기	16	송상호	20,000	기	24	배석근	50,000
자	1	송주영	50,000	전	7	윤석천	50,000	방	11	유재환	20,000	기	16	안상규	20,000	기	24	안영호	20,000
광	1	순남준	20,000	자	7	이재진	20,000	전	11	황인호	20,000	기	16	양희대	20,000	기	25	박선규	20,000
상	1	오응수	100,000	전	7	이희배	50,000	기	12	강희창	100,000	기	16	윤석길	90,000	기	25	서대석	20,000
자	1	이형모	20,000	전	7	한인수	20,000	기	12	공재하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26	남경윤	20,000
자	2	고천근	30,000	방	8	김봉원	20,000	화	12	김용일	20,000	기	16	이상만	20,000	기	26	박경신	20,000
방	2	도기정	20,000	광	8	김월배	100,000	광	12	김종선	20,000	기	16	이영진	100,000	전	27	김태완	30,000
광	2	신황덕	20,000	전	8	손월호	20,000	자	12	민병기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28	신재광	40,000
방	2	최병주	50,000	전	8	유상준	20,000	전	12	박찬웅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28	윤수원	20,000
광	2	최인성	20,000	자	8	윤택진	20,000	기	12	서영환	20,000	기	16	조영호	70,000	배	28	이용원	50,000
전	3	민철기	20,000	전	8	이재범	50,000	광	12	송진만	20,000	기	16	채홍종	50,000	기	31	권오진	70,000
광	3	서한수	100,000	전	8	이정권	20,000	기	12	오승수	20,000	기	16	최현주	20,000	기	33	김민호	20,000
전	3	송문헌	20,000	전	8	이정식	20,000	기	12	이종화	20,000	배	16	한종관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	염진영	20,000	방	8	이태용	20,000	전	12	한영식	100,000	전	16	한흥교	70,000	설비	52	김민호	20,000
방	3	윤백현	2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13	강민형	20,000	기	16	황선영	20,000	단체		13회동문회	100,000
자	3	이만근	20,000	자	9	김시절	20,000	기	13	김영목	20,000	기	17	나준헌	20,000	단체		법우회	500,000
전	3	이봉원	20,000	기	9	김철웅	20,000	전	13	이일섭	20,000	전	17	서용덕	20,000			무기명	60,000
전	3	이우정	70,000	기	9	박종복	20,000	화	13	임오혁	20,000	기	17	윤영문	20,000				
광	3	장석기	20,000	광	9	신승수	120,000	전	13	정성태	100,000	전	17	이영재	20,000				
전	4	라상원	20,000	전	9	안영철	100,000	기	13	한갑우	20,000	기	17	이훈로	100,000				
전	4	박상규	20,000	자	9	오경세	20,000	기	13	황규성	50,000	기	17	장세정	20,000				
전	4	박주국	20,000	전	9	오옥균	2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18	김형철	20,000				
방	4	송석범	20,000	전	9	오진우	20,000	기	14	김동안	20,000	전	18	마수용	20,000				
자	4	육성균	20,000	전	9	윤영선	20,000	기	14	김병갑	20,000	기	18	신동현	20,000				
자	4	윤광열	50,000	자	9	이건희	20,000	화	14	김선중	20,000	기	19	김경수	20,000				
전	4	이강주	20,000	전	9	이선기	20,000	기	14	박수범	20,000	기	19	박문수	20,000				
전	4	이승원	50,000	광	9	이시훈	20,000	기	14	박준서	50,000	기	19	이강식	20,000				
광	4	이재두	20,000	기	9	이주동	100,000	기	14	오승준	20,000	기	19	이재원	20,000				
광	4	장희석	20,000	전	9	이창호	20,000	기	14	유한균	20,000	기	19	임운택	50,000				
자	4	황완수	20,000	전	9	임세환 (이사)	100,000	화	14	윤재중	120,000	전	20	김양환	20,000				
전	5	김흥년	20,000	전	9	임세환 (총동문회장)	200,000	기	14	이상호	20,000	기	20	류지만	20,000				
방	5	라길찬	20,000	전	9	장광룡	20,000	기	14	이성림	20,000	금	20	이두희	20,000				
자	5	이용달	20,000	방	9	진한종	20,000	기	14	임화섭	100,000	기	20	황윤철	20,000				
전	6	김기장	20,000	기	9	홍성헌	20,000	기	15	이명기	20,000	기	21	석병기	20,000				
자	6	김태관	20,000	전	10	곽용섭	20,000	화	15	이석신	20,000	기	21	이상구	20,000				
전	6	유동환	20,000	전	10	김병락	20,000	기	15	이중재	20,000	기	21	조정관	20,000				
전	6	윤여봉	50,000	화	10	김병옥	20,000	기	15	황희종	50,000	기	21	진춘식	100,000				
자	6	한재헌	20,000	전	10	이병렬	20,000	기	16	강경구	20,000	기	23	김복호	20,000				
전	6	황재현	20,000	광	10	정현덕	20,000	배	16	고창복	20,000	기	23	최병무	20,000				

안산동문회 연회비

화	15	김석원	20,000	기	23	김인환	20,000	
기	15	조병화	20,000	전	25	김종민	20,000	
기	16	조성서	20,000	기	26	이진서	20,000	
전	17	김양헌	20,000	기	31	이덕현	20,000	
배	20	남상규	20,000	기	35	최우진	20,000	
기	20	김대영	20,000	기	44	정창연	20,000	

회보 광고비

전	13	황학순	350,000	기	18	박종용	50,000	
화	15	정영환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유병각	50,000	업체		크라운뷔페	70,000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양화리
♦양갈비코스 28, 000원
(양갈비200g + 찹쌀탕수육 + 양고기전골)
♦단체모임, 가족모임환영, 전용주차장완비♦
010-6420-8885 대표 전 재 홍(15회)
봉명점 : 대전 유성구 봉명동 675-7 T. 824-8886
☞ 유성지구대 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영빈테크
국내최초 곡면 날 스텐작두
약초 채취용 곡괭이 대표 : 정용원(15회)
정밀금형, 설계제작, JIG제작, 특허개발, 약초곡괭이, 스텐작두
검색 : 다음블로그 영빈의 작은공간
구입. 제작문의 : 010-5408-98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쓰로 91 (호계동 한국프라자 3층 301호)
E-mail : jyw0021@hanmail.net FAX : 031)427-9767

황 학 순(13회) 010-3441-8886
☎042) 284-8880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24-1번지(식장산)

ZIN solar 지인솔라에너지
Z-IN Solar Energe

대표 우진권(33회)
010. 8315. 0128
Tel 1522-9745
zinsolar@naver.com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53-14
태양광발전사업[RPS] 전문기업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크라운출장뷔페
CROWN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
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 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7080 쉘부르
프리랜서
대표 우 일 제 (14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22(계룡사옥 정문 맞은편)
H.P : 010-9413-7882

이대박 감자탕 뼈찜·족발
체인사업부 대표
이 석 규 (1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45-9번지
가맹점 문의 : 1522-1452
휴대전화 : 010-4442-4613

법무사 / Beommusa Lawyer
정 영 환 (15회)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최선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분야 ●신청분야 ●형사소송분야
●법원에 관련된 모든일 ●등기분야
●개인파산, 회생 ●집행 및 경매분야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301호(둔산동, 청남빌딩)
전 화 : 042-472-8061 팩 스 : (042) 472-5780
휴대폰 : 010-5487-8060
이메일 : jungyh9@naver.com

우명동 참기름

대표 박철규(16회)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길 89 (우명동)
TEL. (042) 581-1837
H.P. 010-5404-1837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왕왕 양꼬치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용프로 골프
사단법인 한국골프클럽피팅협회 Korea Golf Club Fitting Association
대표 임 태 수 (6회)
지정 피팅골프샵 010-5401-34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8-18
Tel. 042-823-9044 Fax. 823-9055

청호나이스
www.chungho.co.kr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청호나이스 25년 기술력의 결정체 휘카페 - Ⅳ 엣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18년 연속 수상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우케미컬 및 칼곤사의 필터 재료사용
대전유성지사 박 선 규 (25회)
010-3882-5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 5층(지족동)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282-5658 총동문회 사무국